

박두진 초기시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의 이중성과 그 의미

금동철*

|| 차례 ||

- I. 서론
- II. 자연 이미지의 공간적 이중성
- III. 자연 이미지의 시간적 이중성
- IV. 두 이중성의 의미와 가치
- V. 결론

【국문초록】

박두진의 초기 시에는 밝은 자연 이미지와 어둡고 차가운 자연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자연 이미지를 가르는 것은, 자연 이미지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소인 '빛'이다. 빛이 없는 공간에서 자연은 생명력이 사라진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면, 빛이 비치는 공간에서 자연은 밝고 따뜻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지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 자연이 동일한 존재라는 점이다. 동일한 자연이 그 위에 비치는 빛의 유무에 따라 어두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밝은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 자체가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비치는 빛에 의해 그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자연을 신성시하지 않고 하나의 창조물로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초기 시에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는 기독교적 낙원 개념과 결합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낙원 이미지가 미래시제로 서술될 뿐만 아니라 현재시제로도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인이 낙원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보여준다. 시인에게 있어서 낙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할 소망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경험하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인 것이다. 이러한 낙원 이미지의 미래성과 현재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나타나는 현재성과 미래성의 혼용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 이미지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적 자연 이미지의 특징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며, 박두진의 중·후기 시에 나타나는 현실비판적 세계 인식 태도를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주제어 : 자연 이미지, 이중성, 낙원 이미지, 현재성, 미래성

I. 서론

박두진의 시 세계가 지닌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자연 이미지이다. 그가 등단할 때 정지용이 그의 시를 “森林에서 풍기는 식물성의 것”, “다옥한 森林”의 “新自然”¹⁾이라고 평가한 바와 같이, 박두진의 초기시에는 자연 이미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시세계를 다루는 많은 논의들은 초기시²⁾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왔으며, 또한 그 자연을 기독교와 관련지어 설명하여 왔다.³⁾ 사실 그의 시세계는 초기 시뿐만 아니라 후기 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를 논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논의는 빠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그 중 특히 초기시의 기독교적

1) 정지용, 『시선후』, 『문장』 1940년 1월호, p.195.

2) 본고에서는 그의 초기시 즉 시집 『청록집』과 시집 『해』에 실린 그의 시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의 기독교적 자연 이미지가 가장 강렬하게 형상화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시들이며, 또한 그 자연 이미지가 그의 이후의 시 세계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 김재홍, 『해산 박두진』,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90; 최승호, 『〈청록집〉에 나타난 생명시학과 근대성 비판』, 『서정시의 이데올로기와 수사학』, 국학자료원, 2002; 김웅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등 참조.

자연 이미지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의 형상화 방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박두진의 초기 시에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의 자연 이미지를 “미래지향적 낙원 회복의 꿈과 기다림”⁴⁾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나, 묵시적 유토피아의 성격을 지닌 “장차 도래할 미래의 이상적 공간”⁵⁾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 자연 이미지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예언적인 면, 즉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미래적인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려지는 자연 사물들은 밝은 빛에 휩싸여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그의 초기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초기 시의 자연 이미지가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연 자체가 하나의 동일한 의미망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망을 지닌 이미지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동일한 자연 이미지가 하나의 작품 내에서 긍정/부정 혹은 밝음/어둠 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의미망을 지닌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다. 이 둘은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의 전이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전이에는 일정한 계기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자연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망이 전혀 상반된 의미망으로 전이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적되어야 할 또 다른 이중성은, 자연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낙원 이미지’의 시제가 이중적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시인은 미래시제를

4) 김재홍, 위의 책, p.397.

5) 최승호, 위의 책, p.23.

사용하여 낙원 이미지를 형상화함과 동시에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낙원 이미지를 형상화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시제를 사용한다 함은 이러한 낙원이 미래적인 것임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것을 현재시제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중성의 근원적인 원인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많은 논의들이 그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자연 이미지 혹은 낙원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 왔지만, 이러한 이중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주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이해는 박두진 초기 시의 시세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의 초기 시에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가 이후에 전개되는 그의 시세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자연 이미지의 정확한 이해는 그의 전체적인 시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도 될 것이다.

II. 자연 이미지의 공간적 이중성

박두진의 초기시에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는 두 가지 대립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이미지가 '긍정성/부정성'이라는 대립적인 두 가지 의미망을 지니고 형상화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대립적인 의미망이 다른 작품, 즉 다른 시적 문맥 속에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작품 내에서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자연 이미지가 보여주는 의미망의 전이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작품 속에서 동일한 자연이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의미망을 지닌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하나의 자연이 어둡고 우울하며 지극히 부정적인 의미망을 지닌 자연 이미지와, 밝고 찬란하며 따뜻함을 지닌 자연 이미지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중 부정적인 자연 이미지는 시인의 비관적 현실인식⁶⁾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제강점기 말기와 해방공간, 그리고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민족사의 현장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시인이 경험하는 당대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자연 이미지가 그 자체로 전이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어둡고 우울하며 부정적인 의미망을 지닌 자연과 밝고 찬란하며 따뜻함을 지닌 자연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 이미지가 어떤 계기를 통해 상반된 의미망을 지닌 자연 이미지로 전이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러한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서의 핵심 이미지가 존재한다. “빛” 혹은 “태양”으로 대표되는 이미지가 이러한 전이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연이 하나의 작품 내에서 대립적인 의미망을 지닌 이미지로 이중적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적이다.

하나의 작품 속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할 경우, 그 의미망을 담아내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이항대립적인 구조가 이러한 요소를 담아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통시가에서 안빈낙도를 노래하면서 형상화하는 자연 이미지가 티끌에 묻힌 속세의 이미지와 대립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시적 자아는 전혀 별개인 이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면서 어둡고 부정적인 세계를 벗어나 밝고 긍정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두진의 시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자체의 이항대립이 사라지고, 오히려 동일한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망의 대립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밝고 희망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 이미

6) 김재홍, 앞의 책, p.395.

지와 어둡고 우울하며 차가운 자연 이미지가 각각 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이 작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 혹은 "빛"과 같은 이미지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 이미지들이 작품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이될 수 있는 강력한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의 초기시에서 이 "빛"의 이미지는, 그가 등단 이전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그의 시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고려할 때, 분명히 기독교적인 신의 은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빛' 즉 신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버려진 자연은 차갑고 어두우며 자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연 이미지라면, 신의 은총이 비치는 세계 속에서의 자연은 따뜻하고 포근하며 자아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자연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작품 『해』이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얹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넘어서 밤 새 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이글
애편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뿜아, 사슴을 뿜아,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뿜아 사슴을 만나면 사슴
과 놀고,

취범을 뺏아 취범을 뺏아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해」 전문

작품 「해」에서 보면 자연이 두 종류의 의미망을 가진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달밤”이 비치는 밤의 세계라면, 다른 하나는 “해”가 비치는 낮의 세계이다. 이 두 세계에 대한 시적 자아의 접근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밤의 세계가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로 이루어져 있는 어둠의 세계라면, 낮의 세계는 이러한 “어둠을 살라먹고” 솟아오르는 “해”가 비치는 밝고 따뜻한 세계이다. 이 밝은 세계 속에서 자아는 자연의 다른 사물들과 행복한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산”을 좋아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슴이나 취범, 꽃과 새 같은 짐승들과도 한 자리에 앉아 “고운 날”을 누려볼 꿈을 꾸는 것이다.

“달밤”의 어두운 세계와 “해”가 비치는 밝은 세계 사이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여기서 “해”이다. 박두진의 초기 시에서 “해”는, 그 동안의 많은 논자들이 지적해 온 것처럼, 그의 시세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해가 “어둠과 악을 몰아내는 정의와 광명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지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근원적인 생명력의 상징”⁷⁾이기도 하고, “개인적, 시대적, 민족적 어둠을 함께 묶는 초월의 상징”⁸⁾으로도 이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두진의 초기시에 내포되어 있는 시인의 기독교 신앙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 혹은 그 해가 뿌리는 ‘밝은

7) 김재홍, 앞의 책, p.401.

8) 김은자, 「박두진과 생명의 탐구」, 김용직 외 공저,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1993, p.513.

빛'의 이미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이며 구원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해'와 '달'의 이미지를 구분함으로써 그것들이 지닌 의미를 구분한다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이 '해/달'의 이항대립이 '남성적인 성격/여성적인 성격'의 구분을 보여주며, 시인이 이 중 '해'를 선택한다는 것은 '달'의 이미지에 부여했던 전통적인 가치체계와는 다른 세계를 지향하는 것임은 분명하다.⁹⁾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해'를 통해 표상되는 '빛'의 역할이다. '산' 혹은 다양한 자연 사물들에 이 '빛'이 비치면, 이들 자연 사물들은 새로운 의미망을 지닌 이미지들로 탈바꿈한다. 달은 여기에서 어둠 혹은 '밤'을 표상하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어쨌거나 박두진의 초기시에서 형상화되는 자연 이미지에선 이중성이 존재한다. 동일한 자연 이미지가 무엇을 배경으로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의미망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이미지의 이중성은 그의 초기 시세계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인 자연 인식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이, 즉 밤에서 낮으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시적 공간이다. 이 시에서 '해'의 역할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근원적인 동인이 된다. 즉 '해'가 비침으로 자아가 있는 공간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지배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는 공간이 '산'이라는 동일한 자연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달밤'에 시적 자아의 시선이 머무는 공간이나 '해'가 떠올랐을 때 시적 자아의 시선이 머무는 공간이 동일한 것이다. 이 공간은 자연이며, 이 동일한 공간이 외적인 요소인 '햇빛'의 유무에 따라 시적 자아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9)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p.103.

여기서의 빛은 분명히 천상적인 요소이며, 또한 그 천상적인 요소는 밝음을 추구하는 시인의 정서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음이 분명하다. 박두진의 초기시에서 이 빛은 기독교적인 창조의 이미지와 맞물려 있다.

빛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 새로 밝아 오면 온 산이 너홀에라. 푸른 잎 나무들 온 산이 너홀에라.

빛 밝은 골짜기에 나는 있어라. 별 쪼이며 별 쪼이며, 빛 방식 깔고 앉아 나는 있어라.

홀로 내 앉은자리 풀 새로 돌아나고, 따사한 어깨 위엔 금빛 새 떼 내려 앉고, 온 골, 별 밝은 골 마다 피빛 장미 피어나면! 나는 울어도 좋아라. 새로 푸른 하늘 아래, 내사 홀로 앉아 울어도 좋아라.

줄줄줄 단 샘물에 가슴이 축고, 빛 고은 산열매사 익어가는데, 아, 여기 작고 짐승의 떼 운다기로, 가시풀 난다기로, 내 어찌, 별밝은 골을 두고 그들로야 헤매랴.

난 있어라. 나는 있어라. 별 밝은 골짜기에 홀로 있어라. 너홀대는 청산 속에 나는 있어라. 귀 깊이 기우리면 머언 가녀린 들려오는 노랫소리……. 아득한 하늘 넘어, 아득히 열려오는 아른대는 빛의 줄기……. 빛 보여, 빛 보여, 나는 있어라.

- 「들려 오는 노래 있어」 전문

이 시에서도 “빛”은 두 개의 세계를 가르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빛’이 있는 밝은 세계, 즉 “별 밝은 골짜기”에서 자연은 “푸른 잎 나무들이 너홀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밝은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자연은 단 샘물이 흐르고 산열매가 익어가며, 풀이 새로 돌아나고 금빛 새 떼가

어깨 위에 내려앉은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가 된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시적 자아는 "홀로 앉아 울어도 좋아라"는 고백을 한다. 이는 인간적인 외로움조차 이 밝은 자연 속으로 들어올 때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도 '빛/어둠'의 이항대립이 선명하게 존재한다. "별 밝은 골"로 표상되는 빛의 세계는 이 시에서 "그늘"의 세계와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빛이 사라진 "그늘"의 세계는 여기에서 "작고 짐승의 떼"가 울고 "가시풀"이 나는 공간이다. 짐승 떼의 울음 소리는 시적 자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이며, 가시풀의 존재는 그 땅의 황폐함을 보여주는 표상이 된다.¹⁰⁾ 다시 말해 "그늘"로 표상되는 자연은 죽음과 황폐함이 지배하는 공간, 즉 생명력이 사라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공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늘'이 지배하는 공간과 '빛'이 지배하는 공간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시적 자아가 머물고 있는 동일한 '자연' 공간인 것이다. 이 시에서도 자연 이미지가 두 가지 의미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빛'의 유무에 따라 자연 이미지 자체가 전혀 상반된 의미망을 지닌 이미지로 바뀌는 것이다. 공간의 차이보다는 그 공간 너머에서 다가오는 다른 요소에 의해 그 공간이 의미상의 전이를 일으킨다는 것은, 박두진¹¹⁾의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인이 『해』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연 사물들이 어둠의 공간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양태로 형상화된다. '짐승' 혹은 '달밤'으로 표상되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자연 사물들은 부정적이고 차가운 세계, 서로를 죽이는 살육의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그러한

10) 여기서 '가시풀'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 살아가야 할 땅에서 자라는 "가시와 엉겅퀴"를 상기시킨다. 이는 가시풀이 땅의 황폐함을 표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세계는 시적 자아에게 "눈물같은 골짜기"로 다가오며, 시적 자아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뜰"에 내버려진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어둠의 세계 속에서 '짐승' 이미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의 초기 시에서 '짐승'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빛'이 없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이기도 하다. "어둠은 가거라. 우름 우는 짐승같은 어둠은 가거라"(『해의 품으로』 중에서)나 "일히들이 오르낸다. 양떼가 무찔린다. 일히들이 오르대며, 일히가 일히로 더불어 싸운다. 살점들을 물어 댜다. 피가 흘른다. 서로 죽이며 작고 서로 죽는다. 일히는 일히로 더불어 싸우다가, 일히는 일히로 더불어 멸하리라."(『푸른 하늘 아래』 중에서) 등에서 보듯이 '일히'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잔혹한 생존방식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빛이 없는 그 세계에 서 있는 자아는 동일한 자연임에도 무섭고 쓸쓸하며 그래서 "웅숭그리며, 오도도 떨며, 참으며, / 하얀 눈 위에서 한밤내--"(『숲』 중에서) 우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에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된다. "해"가 솟아올라 밝은 빛을 비춰줄 때, 자연은 이제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은 공간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던 사물들조차 모두 시적 자아와 화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시적 자아에게는 이 때의 자연이 "사슴"이나 "취범"조차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해"로 표상되는 '빛'이며, 그것은 곧 기독교적인 신의 은총이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곧 기독교적인 '낙원'의 이미지¹¹⁾이다.

11) 이러한 낙원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자들이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형상화된 낙원의 이미지와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지적되어 왔다. 자연 사물들이 모두 시적 자아와 행복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신적인 은총에 의해 회복된 자연, 타락하기

Ⅲ. 자연 이미지 이미지의 시간적 이중성

자연이 가진 이러한 두 가지 이미지의 차이는 너무도 확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항대립적 자연 이미지는 그동안 많은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의 시에 형상화된 낙원 이미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또 다른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다 내밀한 자리에서 작용하는 이중성으로, 이것은 낙원으로서의 자연 이미지를 묘사할 때 나타나는 시제상의 문제로 부터 말미암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의 초기시에서 자연 이미지는 긍정적인 일 경우 '낙원 이미지'로 형상화되는데, 이러한 낙원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 시제를 사용하여 형상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미래시제를 사용하여 형상화되는 낙원 이미지와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형상화되는 낙원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시제의 차이는 시인이 추구하는 '낙원'이 어느 시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낙원인지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시인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표지가 되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는 미래시제의 낙원 이미지에 대해 집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묵시적인 낙원, 예언자적인 낙원이라는 분석이 바로 그러한 관점을 대변해 준다. 그런데 그의 초기시가 지닌 특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낙원 이미지의 이러한 미래적 측면과 함께 반드시 현재시제로 형상화되는 낙원 이미지의 현재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낙원 이미지를 미래시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적 자아가 살고 있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야 신적인 은총이 도래하고, 그때가 되어야 온전한 낙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적 전망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다. 『해』에서 형상화된 낙원 이미지가 이러한 미래적 낙원

전의 자연 이미지의 회복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을 표현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시적 자아가 처한 현재적 상황은 "달밤"이며 "눈물 같은 골짜기" 혹은 "아무도 없는 뜰"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어야만 솟아오를 "해"를 갈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아직도 해는 떠오르지 않았고, 사물들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다. 시적 자아는 어둡고 암울하며 차가운 현재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계, 즉 밝고 환한 빛이 비치는 낙원에 대해 상상하면서 시를 쓰는 것이, 작품 『해』의 시제상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적 낙원은 그의 초기시에서 다양하게 형상화된다.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山 넘어 큰 山 그 넘엇 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동동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山, 묵중히 엮드린 山, 골 골이 長松 들어 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엉서리에 얹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옥새폴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山, 山, 山들! 累巨萬年 너희들 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칩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기다려도 좋으랴?

- 『香峴』 전문

이 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낙원의 이미지는 분명히 미래적인 것이다.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칩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은 싸움과 죽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서로 평

화롭게 공존하는 이사야서의 낙원 이미지를 옮겨 놓은 것이 분명하다.¹²⁾ 그런데 여기에서 시인은 그러한 낙원을 현재적인 시점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시점에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火焰"은 그의 시세계를 고려할 때 분명히 "해"로 표상되는 밝은 빛을 말하며, 그것은 곧 신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적 자이는 이러한 빛이 현재적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비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장차" 혹은 "기다려도 좋으랴"라는 시어에 담긴 시제상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그의 초기시에서 낙원이 미래시제로 존재함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낙원 이미지가 미래시제와 함께 현재시제로도 존재한다는 점이 그의 초기 시에 형상화된 낙원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시적 자이는 '빛'이 비침으로 공간 자체가 낙원으로 변하는 경험을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어서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공간에서도 이러한 밝은 빛이 비치는 낙원으로서의 자연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北邙 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만 무덤들이 외롭지 않아이.

무덤 속 어둠에 하이얀 髑髏가 빛나리. 향기로운 주검뿔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던 주검 죽었으며 이내 안 서럽고, 언제 무덤 속 화안히 비취줄
그런 太陽만이 그리우리.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빠이 빠이 배, 뱃종! 뱃종! 뱃새들도 우는데,
봄별 포군한 무덤에 주검들이 누웠네.

- 「墓地頌」 전문

12) 최승호, 위의 책, p.23.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무덤 속 어둠을 밝혀 줄 '太陽'이 분명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야 비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시적 자아가 미래시제로 형상화된 낙원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현실세계가 이미 환한 빛무리에 싸여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북망(무덤) 혹은 죽음은 어둡고 두려운 그 무엇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그 무덤의 세계를 오히려 밝고 환한 세계로 그려낸다. 시적 자아에게는 살아있는 삶 자체가 오히려 더욱 "설던"(즉 서럽던) 세계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면, 죽음으로 인해 도달하게 된 "북망"의 세계는 환하고 밝은 긍정적 세계로 그려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의 대상이 되는 주검이 오히려 "향기로운 죽음잇내"를 풍기는 것으로 그려지는 세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럽지 않은 세계 속으로 이미 시적 자아는 들어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덤들이 서로 물려 있는 "북망"이라는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공간, "포근한" 공간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술어들의 시제이다. 빛이 비칠 때 일어나는 자연의 의미망의 전이를 보여주는 서술어들의 시점이 이 시에서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어둠과 차가움,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지배하는 자연에서, 밝고 따뜻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으로의 전이를 서술해 주는 단어들의 시점이 여기에서는 미래시제와 현재시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빛나리", "풍기리" 등의 단어들에는 미래시제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초기시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의 전이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일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 단어들에 사용된 미래시제 역시 이러한 미래의 시점에 대한 표상이라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무덤 속에 묻

혀 있는 주검들의 상태가 오히려 "하이얀 측루"가 되어 빛이 날 것이며, 그 무덤 속 세상에는 시체 썩는 악취가 아니라 오히려 "향기로운 주검잇내도" 풍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적 자아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제 무덤 속 화안히 비취줄 그런 太陽"임을 지적한다.

이 시에는 그런데 이러한 미래시제와 함께 현재시제가 사용되고 있다. "외롭지 않아이"라든가 "할미꽃이 피었고", "멧새들도 우는데", "주검들이 누웠네"라는 서술어가 취하고 있는 시제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피었네"나 "누웠네"라는 단어에 사용된 시제는 문자적으로 볼 때 분명 과거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적 자아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에서 '피어있네', '누워 있네'라는 의미로 읽히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들에 사용된 시어들의 시제는 현재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현재 무덤들 사이에 서서 주위에 널려 있는 무덤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적 자아는 그 무덤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무덤들의 현재적인 상황이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야 외로워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적인 상황이 '외롭지 않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적 자아가 서 있는 공간은 주변으로 무덤들이 널려 있고, 그 무덤 속에는 주검들이 누워 있으며, 그 위로는 할미꽃이 피어 있고, 멧새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오는 전형적인 무덤의 풍경인 것이다. 그런데 시적 자아는 그 속에서 어둡고 차가운 죽음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위로 내리비치는 "봄별"의 포근함을 느끼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포근한 봄별을 느끼면서 시적 자아는 서 있다.

이 "봄별"이 자연 사물들 위에 내리비칠 때, 그 빛을 받은 자연 사물들은 차가움과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따뜻하고 포근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시적 자아의 주변에는 "동그만 무덤들"이 외롭지 않게 널려 있고, 금잔디 할미꽃이 피어 있고, 멧새들도 울고 있으며, 봄별이 포근하게 내리

찍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검이나 죽음, 무덤, 측루 등의 이미지는 생명과는 상극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금잔디, 할미꽃, 멧새 등과 함께 공존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은 부활의 공간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³⁾ "죽었으매 이미 안 서럽고"라는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적 자이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 새로운 위로를 받고 있다. 이것은 여기에서 형상화된 모든 사물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생명 세계, 즉 생명력이 살아있는 자연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재시제를 통해 시적 자이는, 자신이 그렇게 바라는 환한 빛이 비치는 낙원이 미래적인 어떤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경험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재시제는 앞서 살펴본 「해」나 「향현」과 같은 시에서 나타나는 미래시제의 낙원 이미지와 대비되는 것이다. 이는 시인이 그려내는 '낙원'이,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어야 도달할 수 있는 '희망'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현재적 '기쁨'의 대상이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박두진 시인이 초기시에서 형상화하는 '낙원 이미지'가 미래적인 소망의 대상으로 형상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낙원으로 형상화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적인 낙원 이미지는 그의 초기 시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지마다 파아란 하늘을
바들었다.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고롭다.

靑松이라도 가을 되면
홀 홀 落葉 진다 하느니

13) 최승호, 앞의 책, p.26.

봄 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웁다.

낮에 햇별 입고
밤에 별이 소울술 내리는
이슬 마시고

파릇한 새 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 「落葉松」 전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의 서술 시점이 모두 현재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낙엽송이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 즉 환한 빛무리에 싸인 듯한 밝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시제에서의 밝음과 충만한 생명력은, 「해」나 「향현」 등에서 나타나는 현재시제의 자연 이미지에서 형상화되는 어둡고 암울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임이 분명하다. 낙엽송은 일반 소나무와는 달리 침엽수이면서도 가을에 낙엽을 떨구는 수종이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봄마다 새로 젊은 / 자랑”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만큼 낙엽송을 밝고 환한 세계 속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빛’이다.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낙엽송’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지마다 파아란 하늘을 / 바들었다”는 점이다.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낙엽송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기다리는 인간의 자세와 흡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낙엽송에게 하늘은 낮에는 “햇별”으로, 밤에는 “별이 소울술 내리는 / 이슬”로 은총을 내려준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총’을 통해 낙엽송은 봄마다 새롭게 젊을 수 있고,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고”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낙엽송의 생명력 넘치는 존재방식이 현재시제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시제로 형상화되는 낙원 이미지 또한 그의 초기시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늘」이나 「푸른 숲에서」 등에서 이러한 현재시제로 형상화된 낙원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박두진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낙원 이미지는, 이들 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현재시제"와 "미래시제"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시인의 의식 속에는 낙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시인의 세계관 속에서 낙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환각이 아니라, 현재적 시점에서 시인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인지적 경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IV. 두 이중성의 의미와 가치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박두진 초기시의 자연 이미지에는 두 가지의 이중성이 존재한다. 시적 자아가 서 있는 동일한 자연 공간이, 죽음과 차가움이 지배하는 어둠의 공간임과 동시에 밝음과 생명이 지배하는 빛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중성이다. 어둠의 공간에서 빛의 공간으로의 전이는 그의 초기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인 "해" 혹은 "빛"의 존재로부터 말미암는다. 「해」나 「향현」, 「들려오는 노래 있어」, 「숲」 등의 시에서 발견하는 현재적인 공간은 분명히 부정적이고 차가운 어둠의 공간이지만, 그 공간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해'로 표상되는 밝은 빛이 비치는 순간 '낙원'으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일 공간의 의미망의 전이는, 그의 초기시가 보여주는 공간으로서의 자연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

의 초기시에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는 전통적인 유가적 자연 이미지와 다르다. 그리고 박두진의 종교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연결된다.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자연은 하나의 피조물일 뿐, 그것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 이미지는 공간 자체를 이법의 표현태로 보는 전통적인 유가적 자연 이미지와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 자체는 결코 신성시될 수 없다. 자연도 신이 창조한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연 자체를 신성화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우상숭배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¹⁴⁾ 이러한 자연의 절대화 혹은 신비화는 부정의 대상이 된다. 박두진의 초기 시에 형상화되는 자연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자연은 신비화되지 않았다. 시적 자아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밝음' 혹은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게 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빛'의 유무, 즉 신적인 은총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신적인 은총이 비치는 공간은 이제 기독교적인 '낙원'이 된다.

박두진은 그런데 이러한 자연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념적인 '낙원 이미지'를 창조한다. 이렇게 창조된 자연 이미지는 구체적인 자연 사물의 재현 보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¹⁵⁾ "자연 대상들을 묘사하면서 그는 이상화된 자연, 혹은 관념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 주고"¹⁶⁾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자연 사물들이 그것 자체로 묘

14) 성경의 십계명 중 제2계명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 사물 자체가 결코 신성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5) 정태용, 『박두진론』, 『현대문학』 1970년 4월호, p.300.

16) 김은자, 앞의 논문, p.512.

사되기보다는 관념적인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 선택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기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인 '해'가 "생명의 표상이자 그 영속성의 상징이며, 새 역사의 도래에 대한 확신이며 갈망이고, 그러한 모든 것을 주재하는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¹⁷⁾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된 이미지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연 이미지가 갖고 이러한 속성은 '낙원' 이미지와 쉽게 연결된다. 자연 이미지가 기독교적 낙원을 표상하기 위한 이미지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 이미지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망을 지닌 이미지로 양립할 수 있게 된다. 자연 공간 자체가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의미망을 바꾸어주는 계기에 의해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공간 자체가 신성시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망을 지닌 공간으로 형상화되거나, 다른 의미망을 지닌 공간으로 전이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에서 자연 이미지는 이러한 의미망의 전이를 자주 경험한다. 자연 자체가 신성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 이미지의 전이를 만들어 주는 계기이다. 박두진의 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해'로 대표되는 '빛'의 이미지이다. '해', '봄별', '화염' 등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이 '빛'은, 어둡고 암울한 현실 공간을 밝고 생명력이 넘치는 미래적 낙원 공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빛'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표상으로 작용한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박두진 초기 시의 핵심 이미지 중의 하나가 '해'의 심상이라면,¹⁸⁾ 이 빛의 심상은 천상적 존재로서의 기독교적 신을 표상하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연 이미지가 지닌 두 번째 이중성이다. 그의 시에서

17) 김재홍, 앞의 책, p.402.

18) 김재홍, 앞의 책, p.85;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p.96.

낙원 이미지는 미래시제로만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제로도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시적 자아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경험할 수 있는 낙원뿐만 아니라, 현재적 시점에서도 낙원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묘지송』에는 낙원 이미지가 미래시제와 현재시제가 혼용되어 형상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낙엽송』, 『하늘』 등은 현재시제의 낙원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제의 이중성은 시인에게 '낙원'의 관념이 이중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하겠다.

낙원 이미지가 지닌 '미래/현재'의 이중성은 단순한 미래지향성 혹은 현실지향성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점을 지닌다. 현실적으로 그 낙원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초기의 다른 시편들에 형상화된 어둡고 차가운 현실 인식과는 분명히 대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제상의 이중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낙원 이미지의 특징 중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낙원'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도 이러한 시제상의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왕권 즉 통치권의 개념이라는 점¹⁹⁾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권' 혹은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자신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이는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개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²⁰⁾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19)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성서유니온, 2005, p.26.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도래할 나라를 말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역사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종말론적 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미래적인 시점에 도래할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의 탄생과 함께 우리 인간들 속에 작용하게 된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해 존재하는 현재적 왕국이기도 한 것이다.²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미래성과 동시에 현재성을 지닌 것이라면,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인 박두진 시인의 시에 형상화된 낙원 이미지가 지닌 이중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의 시에 형상화된 낙원 이미지는 일부 논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은 '예언적'이고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시인의 내적 경험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박두진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내적인 신앙 경험을 통해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를 '낙원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은 그의 시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다. 자연 이미지 자체가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존재가 되어 신성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기독교적 자연 이미지의 본질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연은 언제나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그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즉 시적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자연 이미지는 부정인 것으로 형상화되며, 시적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자연 이미지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벗어버

20) G. E. 래드,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2, p.78.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not yet)"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에 대한 완전한 경험은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다.

21) G. E. 래드, 위의 책, pp.84-86.

리고 따뜻하고 환한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²²⁾. 기독교적 관점을 지닌 다른 시인들의 시에서도 이러한 기독교적 자연 이미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기독교적 자연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일한 자연이 자아와 신과의 관계에 의해 그 의미망이 달라진다는 것은 시인의 세계관적 특징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두진 초기 시의 자연 이미지에 나타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중성은 그 이후의 그의 시 세계가 지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현실비판적 세계 인식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시집 『거미와 성좌』 이후의 그의 시 세계가 보여주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비판적 태도는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세워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자연 이미지가 지닌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형상화한 낙원 이미지가 단순히 미래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으로까지 인식된다는 점에서 시인은, 인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 대한 복합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수행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초기시에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시 세계 전반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을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V. 결론

박두진의 초기시에 형상화되고 있는 자연 이미지는, 밝고 희망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 이미지와, 어둡고 차가우며 죽음의 음산함이 스며있는 자연 이미지가 함께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자연 이미지를 가르는

22) 금동철,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9집 (2006. 6), p.103.

중요한 기준은 자연 이미지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추는 외부적 요소 즉 '빛'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이 빛이 없는 공간에서 자연 이미지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를 지닌다면, 이 빛이 비치는 공간에서 자연 이미지는 밝고 따뜻하며 넘치는 생명력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어두운 자연 이미지와 밝은 자연 이미지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연이라는 점이다. 동일한 자연이 그 위에 비치는 빛의 존재 유무에 따라 어두운 자연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밝은 자연 이미지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비치는 빛에 의해 그 의미망이 전이되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자연 자체를 신성시하지 않고 하나의 창조된 사물로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 설 때, 자연 자체는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절대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오직 '빛'으로 표상되는 신의 은총만이 이러한 자연을 밝고 찬란한 존재로 바꾸어줄 수 있을 뿐이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을 받아 만들어지는 밝은 자연 이미지는 기독교적 낙원 이미지와 결합된다. 그런데 이러한 낙원 이미지는 그의 초기시에서 두 가지 시제로 형상화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미래시제로 형상화된 낙원 이미지와 현재시제로 형상화된 낙원 이미지가 그것이다. 이것은 시인이 낙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이다. 시인에게 낙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할 희망적인 소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현재에서 경험하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형상화하는 낙원 이미지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것이다. 이러한 낙원 이미지의 미래성과 현재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개념이기 때

문이다.

박두진의 초기 시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시세계 전반의 특성을 해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중기 이후의 그의 시세계에 나타나는 현실비판적 세계 인식 태도의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연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신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아의 의식 속에서 그려지는 이러한 자연 이미지가, 현실로서의 사회적 삶의 공간에 대한 치열한 비판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두진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기시에 형상화된 자연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그 출발임과 동시에 핵심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박두진, 『박두진전집 1』, 범조사, 1982.

금동철,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한국 현대 문학 연구』 제19집, 한국현대문학회, 2006, pp.87-115.

금동철, 『정지용 후기 자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한민족어문학』 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 pp.497-524.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90.

김현자, 『박두진과 생명의 탐구』,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사연구』, 일지사, 1993, pp.511-522.

래드, G. E.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2.

래드, G. E.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태훈 역, 엠마오, 1985.

-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성서유니온, 2005.
- 윤재근, 『시인의 儀와 吟-박두진 <靑山道>』, 정한모 편,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93.
- 임영주, 『박두진의 생애와 사상』, 국학자료원, 2003.
- 정지용, 「시선후」, 『문장』 1940년 1월호.
- 정태용, 「박두진론」, 『현대문학』 1970년 4월호.
- 최승호, 「<청록집>에 나타난 생명시학과 근대성 비판」, 『서정시의 이데올로기와 수사학』, 국학자료원, 2002.

Abstract

The Dual Meaning of the Image of Nature in the Early Poetry of Park Doojin

Keum, Dong-cheol

The early poems of Park Doojin has two aspects and those are contrasted each other. The dark and cold image of nature is the one and the bright and warm image of nature is the other. The 'light' from the outside of the nature separates these two images. The nature lacking the light is full of the dead images and the nature with the light is full of energies of lives. But we must give attention to that the two natures are the same thing in his poems. The same nature can be dark cold nature and bright warm nature according to the existing of light. This means that the nature is not the independent and absolute things but the variable things according to the light. This view point to nature is related to the Christian world view. In that point of view, the nature itself is not the paradise giving the eternal peace to man. Only the grace(the light) of God make the nature to the paradise.

The paradise in his early poems is related to the conception of christian paradise and is scribed onto the future tense and the present tense. It has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understanding his world view. The poet cognizes the nature having two aspects of paradise that are the future thing of desire and the present thing of present experience. This conception is very similar to the kingdom of God that is described the concept of "already not yet". The image of nature in christian world view contains this present and future meaning of nature.

Key words : the image of nature, dual meaning, the image of paradise, the present, the future.

금동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소 : (476-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 151-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전화번호 : 031) 770-7895

전자우편 : kdcac@naver.com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

